

수요중보기도회, “코로나 척결” 간절한 기도

세찬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뉴저지 지역의 여성 목회자들과 전도사들, 사모들이 19일 오전 10시30분 뉴저지 길교회(담임 양혜진 목사)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코로나19 퇴치를 위하여”, “자녀들과 학교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

양혜진 목사가 인도하는 “수요중보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30분에 뉴저지 길교회에서 열리고 있다. 8월 19일에 열린 기도회에서는 남승분 목사가 기도를, 서경숙 사모가 헌금 기도를, 박효숙 목사가 설교와 축도를 담당했다.

박효숙 목사는 골로새서 3장



19일 열린 수요중보기도회에서 박효숙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15절을 본문으로 “평강이 주는 경쟁력”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박 목사는 불신자였던 자신이 교회에 다니는 남자 친구에게 이끌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며 살

아가는 삶을 간증하는 감동적인 설교를 했다.

박효숙 목사의 축도 후에, 합심 기도가 이어졌다.

양혜진 목사가 “한국과 미국의 교회를 위하여, 한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을 위하여,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남승분 목사 사 “COVID-19의 예방을 위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길 위하여”, 유사라 전도사가 “이 땅의 자녀들과 학교들을 위하여” 합심 기도를 인도했다.

홍정진 집사의 식사 기도 후에, 양혜진 목사가 정성껏 준비한 장어구이로 점심 식사를 같이 했다. **[기사·사진제공=복음뉴스]**